

현대일본어의 願望文에 있어서의 「が」「を」格交替現象*

김희성**

〈 Abstract 〉

Ga-O alternation in Japanese desiderative constructions

In Modern Japanese, there are two types of desiderative constructions: *mizu-ga nomitai* and *mizu-o nomitai* which both mean 'I want to drink water'. These two constructions have similar meanings, and one can often be replaced by the other. However, there are some cases where replacement is not permitted. This inability i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meanings of the two case particles -ga and -o in the desiderative constructions.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a -tai' construction and the '-o -tai' construction are presented. The former expresses spontaneous desideration, and the latter expresses volitional desideration. In this study, many related phenomena such as types of verb, tense restriction, the modification of words, adverb co-occurrence, co-occurrence with the other specific constructions, and the exhaustive listing interpretation of the case particle '-ga' are considered as support for the argument of this study.

Field: Syntax

Keywords: Ga-O alternation, Spontaneous desideration, Volitional desideration, Exhaustive listing interpretation

1. 서론

현대 일본어의 願望文에서는 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목적어의 格標示가 다음 (1)과 같이 「が」와 「を」로 나타나는 格交替 現象이 관찰된다. 「が」와 「を」의 격교체는 (1)과 같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2)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が」와 「を」의 격교체가 허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 (1) a. 水が飲みたい。
- b. 水を飲みたい。
- (2) a. ?言葉の壁が飛び越えたい。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5650)

** 광운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b. 言葉の壁を飛び越えたい。

願望文에서의 「が」와 「を」의 교체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が~たい」와 「~を~たい」 양 구문의 출현 조건, 주로 「~が~たい」에 관찰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양구문의 의미적 특징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願望文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が~たい」와 「~を~たい」 양 구문의 의미적 특징을 밝혀 어떠한 경우에 「~が~たい」가 사용되고 어떠한 경우에 「~を~たい」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선택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¹⁾

2. 선행연구

2.1 일본어학의 초기 연구

願望文에서의 「が」와 「を」의 격교체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으며 그 역사 또한 깊다고 할 수 있다. 초기 학자들의 「~が~たい」와 「~を~たい」에 대한 견해는 山田(1964)에서 개관하고 있듯이 어느 쪽이 규범적인(표준적인) 표현인가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다. 즉, 「水が飲みたい」가 표준적인 표현이며, 「水を飲みたい」는 표준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주를 이루어 당시의 「が」와 「を」의 격교체 현상에 대한 규범의식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松村(1950)은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が」와 「を」가 둘 다 병존해 왔음을 밝히고, 「가」를 사용할지 「을」를 사용할지는 주어진 상황의 조건에 맞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が~たい」와 「~を~たい」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

2.2 柴谷(1978)

柴谷(1978)에서는 다음 (3)을 들어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주격목적어(「가」 격 명사구)와 술어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문법성이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을」 격을 취하는 타동사문만을 고찰 대상으로 한다. 즉, 「空を飛ばたい」와 같은 문은 「을」 격을 취하더라도 자동사문이므로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松村(1950)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水が飲みたい」という言い方だけを正しいとし、「水を飲みたい」という言い方は正しくないとして、こういう言い方をを用いないようにしようとするのは根拠がないものと認められる。われわれの言語使用の實際を反省してみても、ある場合において、「が」を用いる言いの方が、われわれの表わそうとする気持ちにしっかりとすることがあるのはたしかに事実であるが、しかしまた、ある場合においては、「が」でなく「を」を用いる言いの方がむしろその場にしっかりとした表現をとることが出来ると思われるようなことのあるのもまた事実であると思われる。したがって、「水が飲みたい」という言い方をするか、「水を飲みたい」という言い方をするかは、結局表現價値の問題であって、その場その場の条件に応じて、どちらかの言い方をするものとするのが適當と考えられる。これをただ形式的に一方の言い方だけを正しい(標準的な)ものとし、他の言い方を正しく(標準的で)ないものとして、むりに一方の言い方だけをおしつけるのは、実際に行われている言語事実に反するもので、誤った規範意識によるものである。

(松村1950, p.192)

- (3) a. あたし、あなたとゆっくりお話しがしたかったの。
- b. ?あたし、あなたとお話しがゆっくりしたかったの。
- c. *?あたし、お話しがあなたとゆっくりしたかったの。
- d. *あたし、あなたとゆっくりしたかったの。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3절에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自發的 願望과 意志的 願望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3 森田(1980)

森田(1980)은 「~が~たい」는 「~が」에 초점이 있고, 「~を~たい」는 「~たい」에 초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水が飲みたい」는 「私はジュースやコーラーではない、水が飲みたいんですよ」라는 표현으로 「水が」의 명사부분에 표현 의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水を飲みたい」의 경우, 「私は水を……捨てたいのでも、汲みたいのでも、流したいのでもない。飲みたいのだ」와 같이 화자의 표현 의도는 「飲みたい」라는 동사 부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森田(1980)은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그러나 「~が~たい」에 있어서의 「~が」를 모두 「ジュースやコーラーではない、水が」와 같이 総記 解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남는다. 모든 「~が~たい」가 総記 解釈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4 藤田(1982)

藤田(1982)에서는 (4)~(12)와 같은 양케이트 조사를 통해 「~が~たい」와 「~を~たい」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하여 나타내고 있다.³⁾ 조사에는 (7)의 관용구, (8)의 삽입구, (9)~(11)의 보조동사에 「たい」가 접속된 형태 등 여러 가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 (4) a. A: 何가買いたい? (1.19)
B: 車が買いたいなあ。
- b. A: 何を買いたい? (1.88)
B: 車を買いたいなあ。
- (5) a. 今、とってもフランス語が勉強したいんです。 (1.00)
b. 今、とってもフランス語を勉強したいんです。 (1.93)
- (6) a. ホームランが打ちたいなあ。 (1.03)
b. ホームランを打ちたいなあ。 (1.93)
- (7) a. 早く、ギャンブル生活から足が洗いたい。 (0.41)
b. 早く、ギャンブル生活から足を洗いたい。 (1.98)
- (8) a. カラオケで演歌が思う存分歌いたい。 (0.43)
b. カラオケで演歌を思う存分歌いたい。 (1.99)

3) 藤田(1982)에서는 (4)~(12)의 9문항으로 이루어진 양케이트 667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문에 대한 점수를 2점(O), 1점(?), 0점(x)으로 환산하여 각 문장에 대한 평균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2점에 가까울 수록 그 문장의 허용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 (9) a. いろいろな種類のワインが飲んでみたい。 (0.79)
 b. いろいろな種類のワインを飲んでみたい。 (1.97)
- (10) a. 卒業までに、できるだけたくさん本が読んでおきたいわね。 (0.27)
 b. 卒業までに、できるだけたくさん本を読んでおきたいわね。 (1.99)
- (11) a. すぐ、この仕事がやってもらいたい。 (0.27)
 b. すぐ、この仕事をやってもらいたい。 (1.99)
- (12) a. ビールが飲みたくなるのは、風呂あがりだな。 (1.35)
 b. ビールを飲みたくなるのは、風呂あがりだな。 (1.86)

이상과 같은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에 대해 다음 (13)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13) a. 「を」가ほとんどすべての場合について正しいと思われているのに対し、「が」は、不自然な場合が多い。特に、目的語と動詞、目的語と付属成分などの結びつきが強い場合や、目的語と動詞が遠く離れている場合には、「が」になりにくい。
 b. 名詞に焦点があると思われる場合には「が」がよく現われ、「他のものではなくて何々が」という表現価値的な側面が出る。ただし、今回の調査結果を見る限り、この場合でも、「を」は間違いであるとは言えない。

藤田(1982)는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를 수치화하여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의 허용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단,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13b)의 “「他のものではなくて何々が」という表現価値的な側面が出る”에도 나타나 있듯이, 森田(1980)과 마찬가지로 「가」格을 모두 総記解釈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남는다.

2.5 庵(1995)

庵(1995)에서는 실례 조사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을」는 사용 가능하며, 어떠한 특정 경우에 있어서만 「을」가 「가」로 교체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을」를 無標形式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柴谷(1978), 久野(1973)의 분석을 토대로 「가」와 「을」의 격교체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을 제시하였다.

- (14) 語彙的制約
 a. 漢語動詞はガを取りにくい(久野(1973)의 条件4).
 b. 「氣をつける」のように「目的語」(この構文でガ/ヲによってマークされる名詞句「氣」)と「動詞」(述語からタイを除いたもの。「つける」)の緊密性が高いとガは使いにくい。
- (15) 統語的制約

4) 久野(1973)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순수일본어 동사와 한어 동사의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완전히 구어화되지 않은 한어계 동사는 「가」를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i) a. 本箱が買いたい。 (ii) a. ?本箱が購入したい。
 b. 本箱を買いたい。 b. 本箱を購入したい。 (久野1973, p.55)

- a. 複合形は単純形よりもガを許容しない。
- b. 目的語と述語の間に他の要素が介在するとガの許容度が低下する。柴谷(1978)

(16) 意味的制約

- a. 構文のヲ格の意味役割が「対象」以外である時はガは使いにくい。
- b. 動詞」他動性が高い時はガが使いにくい。

(14)의 語彙的制約이란 한어동사나 定形表現이 「~たい」와 결합할 경우, 「が」를 취하기 어렵다고 하는 제약을 말한다. (14a)의 한어동사 제약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어휘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14b)의 定形表現 제약에 대해서는 定形表現에 있어서의 목적어는 전형적인 목적어가 아니므로 「が」로의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5a)의 統語的制約이란 대부분의 복합형은 「~が~た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제약을 말한다. 단, 다음 (17)~(20)에서 알 수 있듯이 「~てみたい」「~ておきたい」는 상대적으로 허용하기 쉽다고 지적하였다.

- (17) 一度あの本{が/を} 読んでみたい。
- (18) 入院する前に、あの本{(?)}が/を} 読んでおきたい。
- (19) 明日はあの本{* が/を} 読んでいたい。
- (20) 早くあの本{* が/を} 読んでしまいたい。

(16a)의 意味的制約이란, 다음 (21)과 같이 목적어의 의미역할이 対象이 아닌 경우, 「が」로의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다.

- (21) a. 危険地帯である日本{を/* が}出たい気持ちはよく分かった。
- b. 早く電車{を/* が}降りたいと思った。

또한, (16b)의 意味的制約이란, 다음 (22)의 「殺す」「壊す」와 같이 타동성이 강한 동사의 경우, 「~を~たい」가 사용되며, 「~が~たい」의 허용도는 낮아진다는 제약이다.

- (22) a. 「なぜ、おれ{を/* が}殺したいんだ」
- b. すこぶるいかさない草色の作業衣など着こんで鉄砲かつぎに身をやつしているのも、元はといえればくの中にある何かイヤなもの{を/???が}壊したいいからだ。

또한, 「食べる、言う、する、飲む、見る、知る、聞く、着る」와 같은 타동사는 「~が~たい」에도 출현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동사들이 「殺す」「壊す」에 비해 타동성이 약하며, 타동성이 약하다고 하는 성질은 「~が~たい」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庵(1995)는 동사가 가지는 의미적 특징의 하나인 타동성으로 願望文에 있어서의 「が」와 「を」의 격 교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타동성이 강한 동사는 「~を~たい」가 사용되며, 타동성이 약한 동사는 「~を~たい」와 「~が~たい」 둘 다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타동성의 강약이라는 기준으로 願望文에 있어서의 「が」와 「を」의 격교체 현상을 어

는 정도 설명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예들은 동사의 타동성의 강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다음 (23)과 같이 타동성이 약한 동사들도 「~が~たい」의 허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が~たい」에 나타나는 동사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실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 (23) a. 日本語を/?が習いたい。
b. 本を/?が読みたい。

2.6 岡田(2012)

岡田(2012)는 願望文에 있어서의 「が」와 「を」의 격 교체 현상에 대하여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岡田(2012)는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와 「을」의 출현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가~たい」와 「~을~たい」 양 구문이 어떠한 의미적 특징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 않다.

- (24) a. ガ型・ヲ型で地域性があるかは、よく分からない。
b. 「読む」などのように、ヲ型を取りやすい動詞がある。
「テスト終わりにはマンガ(が・を)思う存分読みたい。」に対して
全体(535) … ガ 26(4.9%) ヲ 507(94.8%) 両方 1(0.2%) 無回答 1(0.2%)
c. 「首を突っこむ」のような慣用句は助動詞「たい」がついても、助詞は変化しにくい。
d. 敬語表現はヲ型を選びやすい。
「書類(が・を)書いていただきたい。」に対して
全体(535) … ガ 0(0%) ヲ 533(99.6%) 両方 1(0.2%) 無回答 1(0.2%)
e. 状況設定があり、かつ、名詞に焦点がある場合にはガ型がよく用いられる。
(何気なく立ち寄った本屋で、偶然にもずっと探していた漫画を見つけました。手にとって思わず一言つぶやきます。)「ずっとこのマンガ()読みたかったんだ……！」に対して
24(b)でガ型を選んだ26 … ガ 26(100%) ヲ 0(0%) 両方 0(0%) 無回答 0(0%)
24(b)でヲ型を選んだ507 … ガ 367(72.4%) ヲ 140(27.6%) 両方 0(0%)
無回答 0(0%)
f. 目的となる名詞が具体化するにつれ、ガ型が選ばれやすくなる。
g. 全体として、わずかな差ではあるが、ヲ型が正しいと思っている人の方が多い。

3. 自発的 願望과 意志的 願望

願望文에서의 「가」와 「을」의 교체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례조사를 통해 「가」의 출현 빈도보다 「을」의 출현 빈도가 월등히 높음을 지적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가」와 「을」의 출현 제약에 대하여 논하는 데 집중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가~たい」와 「~을~たい」가 갖는 의미적 특징을 규명하고 그 의미적 특징을 토대로 양

구문에 발생하는 제약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が~たい」와 「~を~たい」 양 구문은 화자의 희망을 나타낸다고 하는 공통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 형식이 다른 이상 양 구문에는 공통적인 의미 이외에 의미적인 차이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 구문에는 어떠한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가? 다음 (25)의 예문을 보면 양 구문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5) a. あ~, 水が飲みたい!
 b. 毎日飲む水だからこそ、安心・安全な水を飲みたい。

(25a)는 운동장을 몇 바퀴 뛰었다든가 날씨가 몹시 더운 날 한참을 걷고 난 후에 나올 수 있는 발화이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는 발화는 어떠한 의지나 사고와는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우러나는 물에 대한 갈망이다. 이것은 마치 길을 걷다가 돌에 발을 부딪쳐 아프다고 하는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경우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5b)는 매일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안전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의식적이며 의지성이 느껴지는 희망을 나타내는 발화이다. 이와 같이 「~が~たい」와 「~を~たい」가 서로 다른 상황을 나타낸다고 하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25a)와 같은 상황의 「~が~たい」를 自發的 願望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25b)와 같은 상황의 「~を~たい」를 意志的 願望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自發的 願望이란 화자가 발화 시점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내면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감각적인 願望이라고 규정 한다. 즉, 「~が~たい」가 나타내는 自發的 願望은 감정형용사나 감각형용사가 나타내는 감정이나 감각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화자의 감정이나 감각이 의지적으로 느껴지거나 사고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自發的 願望 또한 무의식적으로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 감각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화자의 意志的 願望이란 화자의 의지적(의식적)으로 또는 사고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願望이며, 그 願望은 발화시점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므로 발화시점이 아닌 미래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25a)에서 「水を飲みたい」라고는 할 수 없는가? 「水を飲みた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발적인 갈망을 나타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25b)의 「安全な水を飲みたい」는 「安全な水が飲みた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自發的 願望이 아닌 “마시고 싶은 물이 다른 어떤 물도 아닌 안전한 물이다”라고 하는 総記 解釈으로서의 「が」격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음 (26)에서도 “많은 라면들 중에서 먹고 싶은 라면은 바로 그리운 쇼와의 간장 라면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が~たい」는 総記 解釈으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総記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중에서 다름 아닌 OO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久野(1973) 이래 일본어의 「が」에 존재하는 의미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⁵⁾

5) 久野(1973)에서는 일본어의 조사「が」에는 다음 (i)과 같이 総記, 中立叙述, 目的語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중 総記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다름 아닌 OO이”라고 하는 해석을 말하며, 中立叙述이란, 그와 같은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한다.

- (i)a. 太郎が学生です。 (総記)
 (「今話題になっている人物の中では太郎だけが学生です」の意味)
 b. 雨が降っています。
 オヤ、太郎が来ました。 (中立叙述)
 (観察できる動作・一時的状態を表わす)
 c. 僕は花子が好きだ。 (目的語) (久野1973, p.28)

(26) 浅草で懐かしい昭和の醤油ラーメンが食べたい!

이와 같은 総記 解釈으로서의 「~が~たい」는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와는 다른 구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양 구문은 형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구문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願望文에서의 「が」와 「を」의 격 교체 현상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거나 분석함에 있어서 総記 解釈으로서의 「~が~たい」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와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가 대립하고 있음을 논하고, 「~を~たい」로 나타내는 상황이 문맥상 総記를 허용할 경우에 総記를 나타내는 「~が~たい」로 교체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하,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와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의 의미적 특징을 뒷받침하는 현상으로서 3.1절 「동사의 종류」, 3.2절 「時제에 대한 제약」, 3.3절 「連体修飾語」, 3.4절 「부사구와의 共起」, 3.5절 「구문적인 제약」을 제시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3.1 동사의 종류

庵(1995)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が~たい」구문은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 그 출현 빈도가 매우 낮음이 관찰된다. 본 연구에서도 “KOTONOHA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를 이용하여 실례를 조사한 결과, 「~が~たい」구문의 출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⁶⁾ 또한, 출현빈도가 낮을 뿐 아니라 사용되는 동사의 종류가 몇몇 동사에 한정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⁷⁾ 주로 「飲む」 「食べる」 「見る」 「聞く」 「する」 「知る」 「言う」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동사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등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自發的 願望의 의미와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 最近めっきり冷え込んできたため、あったかいモンが食べたいなあ~と作ったのがスープ。⁸⁾

『Yahoo!ブログ2008』

(28) 爽やかな風。真っ青な空。カンカンな太陽。こんな日に、昼間っから芝生の上でウィスキーやビールが飲みたいな。

(29) 全日本当日、これをどう過ごすのが今日の課題でしたが、「海が見たい」朝起きたとき唐突

6)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 少納言”의 「雑誌2005」 「Yahoo!ブログ2008」 「文学2005」 「書籍2005」에서 각각 「たい」를 검색어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제시되는 500건 중 「~が~たい」 「~を~たい」에 해당하는 예문만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が~たい」는 「雑誌2005」에서는 117건 중 3건, 「Yahoo!ブログ2008」에서는 80건 중 15건(그 중 総記 解釈로 판단되는 「が」가 8건), 「文学2005」에서는 95건 중 8건, 「書籍2005」에서는 92건 중 3건뿐이었다.

7) 庵(1995)에서도 『芥川賞全集』(文芸春秋社, 1~15卷, 12, 14卷은 제외), 「天声人語」(1985~1993.9)을 대상으로 한 실례조사를 통하여 「~が~たい」구문에는 주로 「する」 「飲む」 「食べる」 「言う」 「知る」가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8)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문 중 출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 少納言”을 이용해 수집한 것이며, 출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인터넷(Yahoo Japan)을 통해 수집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예문에 대한 판단은 필자와 일본인 화자의 内省에 의한 것이다.

- にそう思いました。 『Yahoo!ブログ 2008』
- (30) 大好きで大好きで、会う前はとっても楽しみなのに会うとケンカしてしまうし、声が聞きたいなあと思って電話するとまたケンカに…いい加減いやになってくるし悲しい。
『Yahoo!知恵袋2005』
- (31) 仕事がしたい!お金がほしい!でも仕事を探しているがなかなか無い。
- (32) 「どういことなのか、まず事情が知りたいですね」と僕は言った。
『ダンス・ダンス・ダンス(上)』村上春樹(著)、講談社、1988
- (33) しかし浩之にはその眼差しやちょっとした仕草で何が言いたいのかだいたい理解ができた。
『To heart』氷上慧一(著)、エンターブレイン、2004

(27)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각적으로 따뜻한 음식이 생각난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내며 (28)에서는 이처럼 좋은 날씨에는 술이 생각난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9), (30)에서도 갑자기 이유 없이 바다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상황과 이유 없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상황을 나타낸다. (31)에서도 무슨 일이든 그저 일이 하고 싶다고 하는 일에 대한 갈망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が~たい」는 화자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27)~(31)은 「~を~たい」로도 나타낼 수 있겠으나,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게 되므로 「~が~たい」의 의미적 특징인 자발적인 갈망상태, 즉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27)~(31)을 総記 解釈으로는 볼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総記란, 문맥상 상정되는 하나 이상의 후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나머지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7)~(31)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7)에서는 차가운 것도 미지근한 것도 아닌 뜨거운 것이 먹고 싶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28)에서도 커피도 주스도 아닌 술이 마시고 싶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29)에서는 바다가 아닌 다른 후보를 상정할 수 없으며, (30), (31)에서도 각각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일이 아닌 다른 후보를 상정할 수 없다.

한편, (32), (33)은 自發的 願望을 나타낸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総記 解釈으로서의 「が」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総記 解釈으로서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総記 解釈으로 본다면 (32)는 다른 정보보다는 우선 사정을 알고 싶다는 의미가 될 것이며, (33)은 상대방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다. 또한, (32), (33)도 「事情が知りたい」「何が言いたいのか」와 같이 「~を~たい」로도 나타낼 수 있으나, 総記 解釈이 사라짐으로써 「が」격 명사구에 놓였던 초점 또한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에는 (27)~(33)에서의 동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사가 출현하는 것이 관찰된다. 일반적인 타동사 (34), (35), 「명사+する」동사 (36), 복합동사 (37), 한어동사 (38), 사역형 동사 (39), 목적어와의 결합이 강한 동사 (40), 관용구 (41) 등 동사의 종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는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상황이 현실 세계에서 매우 제한적인데 반해,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상황은 매우 폭넓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34) 「酒は百薬の長」という言葉を免罪符にすることなく、楽しい飲酒生活を送りたいものですね。
『五本でできるカクテル講座』石垣 憲一(著)、新風舎、2003
- (35) 自分にあつた保険会社を選びたいというユーザーは増えているはずです。

『デジタルな経済』伊藤元重(著)、日本経済新聞社、2001

(36) クリームコロッケを作り置きしたいのですが、どの状態で冷凍したらいいのでしょうか。

(37) シスコの高効率経営を取り入れたいと多くの企業が思う。

『21世紀に勝ち残るITスピード経営』松本孝利(著)、経済界、2001

(38) この「駄目チーム」が1年で劇的に蘇った事例を紹介したい。

『営業チーム勝利の視点』杉原正規(著)、日本コンサルタントグループ、2003

(39) 「人を喜ばせたい、楽しませたい」という気持ちが、僕のお菓子づくりの原点です。

(40) 政府間協議再開の申し入れについて「自分としては最善を尽くしたい」と述べた。

『北海道新聞 2005.9.15』

(41) 途中、口を挟みたい事があっても黙って聞きましょう。

(34)~(41)에서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희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로는 교체할 수 없다. 그렇다면 総記를 나타내는 「~が~たい」로는 교체할 수 있는가? 대부분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단, (34),(35)의 경우 비슷한 「生活を送る」「会社を選ぶ」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다음과 같은 (42),(43)에서는 総記 解釈이 성립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総記 解釈이 성립하기 쉬워지는가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여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42) 私は普通の生活が送りたいんだ! あなたわかる? 普通の生活だよ!

(43) 信頼できる証券会社が選びたいなら、こちらがオススメ。

3.2 時制에 대한 제약

「~が~たい」가 발화 시점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화자의 自發的 願望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발화시점이 아닌 미래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을 나타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감정,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희망을 나타내는 형용사 「ほしい」가 오직 발화 시점에서의 화자의 감정, 감각을 나타내는 것과도 상통하는 점이다.

(44) a. 足が痛い。

b. ??明日足が痛い。

c. 明日(は)足が痛いだろう(痛くなるだろう)。

(45) a. 新車がほしい。

b. ?来年新車がほしい。

c. 来年(は)新車がほしいだろう(ほしくなるだろう)。

(44a)의 「痛い」와 (45a)의 「ほしい」는 발화시의 화자의 감각 또는 감정을 나타내며, (44b), (45b)와 같이 발화시가 아닌 미래에 있을 화자의 감각, 감정을 나타낼 수는 없다. 나타내고자 한다면, (44c), (45c)와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だろう)이나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표현(~くなる)을 덧붙여야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 (46)의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에서도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 (46) a. すしが食べたい。
 b. ?明日すしが食べたい。
 c. 明日すしを食べたい。
 d. 明日(は)すしが食べたいだろう(食べなくなるだろう)。

(46a)는 발화시에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 화자의 自發的 願望을 나타낸다. 그러나, (46b)는 내일이라는 미래에 초밥이 먹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예문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미래에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 희망사항은 화자의 의지적인 계획에 의해 형성되는 의지적인 희망이기 때문이다. 즉, 願望이라는 감정은 발화시에 느끼는 것이지만 희망 사항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시점은 미래가 되므로 이는 自發的 願望이 아닌 意志的 願望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が~たい」의 허용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46c)와 같이 「~を~たい」로 나타낼 수 있다. (46b)가 발화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그것은 내일이라는 미래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 総記 解釈의 「が」가 될 것이다. 또는 (46d)와 같이 미래의 일정 시점에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 감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47)도 미래에 대한 意志的 願望을 나타낸다.

- (47) a. 明日からジョギングを?が始めたい。
 b. 来年あたり富山に家を?が建てたい。
 c. 卒業後は日本の大学で政治經濟を?が学びたいです。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에 대한 희망사항은 「~を~たい」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が~たい」의 허용도는 떨어진다. 이는 自發的 願望의 「~が~たい」가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감정,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문과 가까우며, 감정,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문이 미래의 상태를 나타낼 수 없는 것과 상통한다.

3.3 連体修飾語

명사구에 연체수식어가 접속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가 선택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연체수식어는 명사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 화자의 의지와 계획이 개입된다고 할 수 있다.

- (48) 値段が高くてもおいしくて安全な食品を食べたい。
 (49) 少しでもおいしい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を飲みたい。
 (50) 今年の夏。また沖縄の海を見たいなあ。
 (51) もっと当事者の声を聞きたい。
 (52) 林業に関わる仕事をしたい。
 (53) 六本木ヒルズがオープンした年月日を知りたい。 『Yahoo!知恵袋2005』
 (54) 人前でうまく自分の意見を言いたい。
 (55) 目ざすは上総のあたり、磯の道に江戸の名残を見つけたいものと、JR内房線、千葉の八幡宿駅に降り立った。 『江戸をたずねて街道めぐり』西脇隆英(著)、五曜書房、2003

(56) 取引する上では安定したスプレッドを表示する業者を選びたい。 『Yahoo!ブログ2008』

(48)~(52)에는 (27)~(31)에서와 같은 동사 「食べる」 「飲む」 「見る」 「聞く」 「する」 가 사용되고 있지만, 명사구에 「安全な」 「少しでもおいしいインスタント」 「沖縄の」 「当事者の」 「林業に関わる」 와 같은 연체수식어가 사용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願望을 나타내는 문장이 된다. 따라서 (27)~(31)과는 달리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 와 잘 호응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명사구에 연체수식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意志的 願望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50)의 경우 화자에게 있어서 「沖縄の海」 가 경험상 무의식적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생길 만한 대상이라면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沖縄の海が見たい」 가 성립할 것이다. (53)~(56)도 「六本木ヒルズがオープンした」 「自分の意見」 등의 연체수식어가 명사구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を~たい」 가 선택되었다. 또한, (48)~(54)의 경우 문맥이 상정된다면 総記 解釈의 「~が~たい」 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55), (56)은 総記 解釈의 「~が~たい」 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3.4 부사구와의 共起

본 절에서는 「~が~たい」 와 「~を~たい」 의 의미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함께 쓰이는 부사구의 의미적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 에 대하여 고찰한다. 다음 (57)~(60)에는 부사구 「無性に」 「何だか」 「何となく」 「なぜか」 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사구는 주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싶다고 하는 화자의 본능적인 희망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어의 의지성을 배제하는 부사구는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 와의 호응도가 높으며,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 와는 잘 호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7) 昨日は無性に粉もんが/?を食べたくて、お昼はお好み焼き夜はたこ焼きを食べました。

『Yahoo!ブログ2008』

(58) 何だか甘いコーヒーが/?を飲みたいな。

(59) 何となくラーメンが/?を食べたくて…。フラっと入ったお店です。

(60) レッスンを受けて遅くなった今日この頃。なぜか湯割りが/?を飲みたいです。

반면, 다음 (61)~(65)에는 부사구 「必ず」 「思い切り」 「何が何でも」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사구는 주어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 와의 호응도가 높으며,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 와는 잘 호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61) 訳あって4月上旬に必ず春物スーツを/?が買いたいんですが、皆さんの感じる安くて性能がいいのはどのメーカーですか。

(62) 思い切り夏を/?が楽しみたい。

(63) 何が何でも結果を/?が残したい。

(64) 本気でゴルフを/?が覚えたいのであれば、あまり軽過ぎる女性のクラブは避けた方が良いでしょう。

(65) 若手作家・出演者の登竜門として定着しているバウホール公演も、なるべく回数を/?が増やしたい。

『宝塚百年の夢』植田紳爾(著)、文芸春秋、2002

이상과 같은 부사구와의 共起는 「~が~たい」와 「~を~たい」가 自發的 願望과 意志的 願望이라는 의미적 특징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⁹⁾ 또한 「~が~たい」와는 달리 「~を~たい」는 다음과 같이 훨씬 다양한 의미의 부사구와 호응하는데, 이는 「~を~たい」가 갖는 意志的 願望이라는 의미적 특징이 폭넓은 상황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66) 家族そろって朝食を/?が食べたい。
- (67) トレンドに合わせてシーズンごとに衣料品を/?が買いたい。
- (68) カフェでコーヒーを/?がゆっくり飲みたい。
- (69) 仕事を/?がさっさと片付けたい。
- (70) 二つの味を/?が半分ずつ食べたい。
- (71) スタイルにしばられることなく、住むことそのものを/?が自由に楽しみたいと話してくれました。
『BISES』2005年6月夏号, ベネッセコーポレーション
- (72) 海外サポートを受けられるパソコンを/?が日本で買いたいのですが、どのメーカーがおすすめですか?
『Yahoo!知恵袋 2005』
- (73) アパートを/?が7月から借りたい。

(66)~(71)에서는 「家族そろって」「ゆっくり」「さっさと」「半分ずつ」등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동작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그 동작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의 허용도 폭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72), (73)과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등과도 호응하는데, 장소나 시간을 설정한다는 것 역시 계획적인 과정이 개입하는 것이며, 이는 意志的 願望과 연결된다. 또한, 일본어의 특성상 부사구의 출현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데, (68)~(73)에서는 부사구가 명사구와 동사구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부사구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72)에서는 컴퓨터를 사는 장소가 일본이어야 한다는 점을, (73)에서는 아파트를 빌리는 시기가 7월부터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사구가 명사구와 동사구 사이에 삽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2.1절 柴谷(1978), 2.4절 藤田(1982)에서 「~が~たい」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하였다. 즉 藤田(1982)에서는 다음 (74)에서 「演歌」와 「歌いたい」 사이에 부사구 「思う存分」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74a)의 「~が~たい」보다 (74b)의 「~を~たい」의 허용도가 더 높음을 제시하였다.

- (74) a. ?カラオケで演歌が思う存分歌いたい。
- b. カラオケで演歌を思う存分歌いたい。 藤田(1982)

그러나 다음 (75),(76)을 보면,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도 부사구의 의미가 自發的 願望

9) 주어의 의지성을 배제하는 부사구가 오면 무조건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가 사용되고 주어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오면 무조건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가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부사구의 의미적 특징이 양 구문의 의미적 특징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 호응하는 경우에는 삽입을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75)에서는 주어의 의지성을 배제하는 부사 「無性に」가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출현하고 있으며, (76)에서는 정도부사 「とても」가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출현하여 自發的 願望의 정도를 수식하고 있다.

(75) 時々マクドナルドやケンタッキーなどのようなジャンクフードが無性に食べたくなる事があります。
『Yahoo!知恵袋 2005』

(76)今日は疲れています、ビールがとても飲みたい気分です。

3.5 구문적인 제약

「~が~たい」와 「~を~たい」에는 구문적인 제약이 관찰된다. 「~が~たい」는 호응하는 구문이 매우 제한적인데 반해 「~を~たい」는 다양한 종류의 구문과 호응한다. 이와 같은 구문적인 제약에 대하여 「~が~たい」의 의미적 특징인 自發的 願望과 「~を~たい」의 의미적 특징인 意志的 願望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が~た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77)ここ最近、ラーメンが/?を食べたくてしょうがない。

(78)妊娠9ヶ月に入った頃から異常な程甘い物が/?を食べたくて仕方ありません。

(79)水が/?を飲みたくて飲みたくてたまらない。でも、こんな木の上に水はない。

『裔を継ぐ者』たつみや章(著)、講談社、2003

(77)~(79)의 「~しょうがない」 「~て仕方ありません」 「~てたまらない」는 화자의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문형은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와의 호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어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심적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¹⁰⁾

반면 意志的 願望의 「~を~たい」는 自發的 願望의 「~が~たい」에 비해 호응하는 구문들이 매우 다양하다. 藤田(1982), 庵(1995)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ておく」 「~てもらう」 「~てしまう」 「~ている」와 같은 구문들은 自發的 願望의 「~が~たい」보다 「~を~たい」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80)それは面白いアプローチだね。ぜひ結果を/?が知っておきたいものだ。

『会社を変える戦略』山本真司(著)、講談社、2003

(81)おれの開発した音声入力システムの実験を/?がしてもらいたいんだよ。

『日本語の乱れ』清水義範(著)、集英社、2003

(82)私はこの書類の山を/?が早く片づけてしまいたいの。

『真夜中のヒーロー』ノーラ・ロバーツ(著) 松村和紀子、安倍杏子(訳)ハーレクイン、2003

(83)私はもう少し、ミキさんと一緒におしゃべりを/?がしたい。

10) 다음과 같이 간혹 「~てたまらない」가 「~を~たい」와 호응하는 경우가 관찰된다.

(a) 仕事が待っているのに、私はこんなに仕事をしたくてたまらないのに。何度チャレンジしても、同じことの繰り返しで、私はどうしても会社にとどり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私のパニック障害』野沢真弓(著)、婦と生活社、2004

『雪降る街角にビキニな王女のためいきが聞こえる』 ゆうきみすず(著)、講談社、1989

상기의 문형들은 화자의 의지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지성은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와 호응한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と思う」「~と考えている」「~ていく」「~てあげる」도 自發的 願望의 「~が~たい」보다 「~を~たい」와 더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84) 롤케이크를/?가/作りたいと思うのですが粉砂糖でダメなんですか?

(85) 라주얼타이샤で禁断の9秒台を/?が/目指したいと考えている。

(86) 全国にあるA社の支店でのシェアを/?が/上げていきたい。

『週刊ダイヤモンド』2005年4月2日号 ダイヤモンド社

(87) 佳世子さんに会いに行きたい、声を/?が/かけてあげたい。

『六年二組倉屋佳世子』猪股清喜(著)、文芸社、2003

「~たいと思う」「~たいと考えている」는 화자의 미래에 대한 의지적인 계획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 의미적 특징과 상통하는 「~を~たい」와 호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ていく」와 「~てあげる」 또한 의지적 행동이므로 「~を~たい」와 호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현대 일본어의 願望文에서는 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水が飲みたい」「水を飲みたい」와 같이 목적어의 格表示가 「が」와 「を」로 나타나는 格交替 現象이 관찰된다. 「が」와 「を」의 격고체는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고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が~たい」와 「~を~たい」의 의미적 특징을 밝혀 양 구문에서 관찰되는 제약을 설명하였다. 즉 「~が~たい」는 화자의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며, 「~を~たい」는 화자의 意志的 願望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自發的 願望이란, 화자가 발화 시점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내면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願望이다. 意志的 願望이란, 화자가 의지적으로 또는 사고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願望이며, 그 願望은 발화 시점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미래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が~たい」와 「~を~たい」는 自發的 願望과 意志的 願望이라는 의미적 특징으로 대립하고 있다. 또한, 「~が~たい」의 형태가 総記 解釈을 나타내는 경우가 관찰되는데 総記解釋의 「~が~たい」는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와는 다른 구문으로 규정하고 「~を~たい」로 나타내는 상황이 문맥상 허용할 경우에 総記를 나타내는 「~が~たい」로 교체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自發的 願望의 「~が~たい」와 意志的 願望의 「~を~たい」의 의미적 특징을 뒷받침 하는 현상으로 동사의 종류, 시제에 대한 제약, 연체수식어, 부사구와의 共起, 구문적인 제약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고찰을 통해서 양 구문의 의미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동사의 종류에 관해서는 自發的 願望을 나타내는 「~が~たい」에는 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나타내는 동사 「食べる」「飲む」「聞く」「見る」「する」등이 사용되고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에는 출현하는 동사에 제약이 없음을 밝혔다. 시제에 대한 제약에 관해서는 自發的 願望의 「~が~たい」는 발화 시점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願望을 나타내며

미래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願望은 나타낼 수 없는 데 반해, 意志的 願望을 나타내는 「~を~たい」는 발화 시점과 미래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願望을 둘 다 나타낼 수 있다. 연체수식어에 관해서는 명사구가 연체수식어에 의해 한정되는 경우에는 「~を~たい」가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으며, 부사구와의 공제에 관해서는 양 구문의 의미적 특징과 호응하는 부사구가 함께 쓰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구문적인 제약에 관해서는 양 구문의 의미적 특징과 호응하는 문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주장한 自發的 願望의 「~が~たい」와 意志的 願望의 「~を~たい」, 그리고 総記解釈의 「~が~たい」와의 상관관계는 願望文에서의 格交替 現象을 설명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되며 향후 総記解釈으로서의 「~が~た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명확한 일반화를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庵功雄(1995) 「ガ~シタイとヲ~シタイ-直接目的語の格標示のゆれ-」 宮島達夫, 仁田義雄編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 くろしお出版 pp.53-61
- 井上和子(1976) 『変形文法と日本語(上)』 大修館書店
- 岡田佳美(2012) 「助詞「が」と「を」の研究-「水が飲みたい」と「水を飲みたい」から-」 『三重大学日本語学文学』 23 三重大学日本語日本文学研究室 pp.78-92
- 久野日章(197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柴谷方良 『日本語の分析』 大修館書店
- 時枝誠(1950) 『日本文法口語編』 岩波書店
- 野田尚史 (1996) 『「は」と「が」』 新日本語文法選書1 くろしお出版
- 藤田正春(1982) 「「水が飲みたい」か「水を飲みたい」か」-初級日本語におけるその教育的選択-」 『人文科教育研究』 人文科教育学会 pp.91-110
- 松村明(1951) 「「水を飲みたい」という言い方について」 『東京女子大学論集』 vol.1 No2 東京女子大学学会 pp.31-52
- 山田巖(1964) 「「水が飲みたい」と「水を飲みたい」」 『口語文法の問題点』 口座現代日本語6 明治書院 pp.332-338

〈 要 旨 〉

現代日本語の願望文における「が」「を」格交替現象

現代日本語の願望文では述語が他動詞である場合、「水が飲みたい」「水を飲みたい」のように目的語の格表示に「が」と「を」の交替現象が見られる。しかし、この格交替現象は常に成立するわけではなく、成立しない場合も多数観察される。それでは、どのような場合に「～が～たい」が用いられ、どのような場合に「～を～たい」が用いられるのかが問題になる。この問題について、先行研究では、両構文に見られる制約を中心に考察が行われてきたが、本稿では、両構文の意味的特徴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両構文に見られる諸現象(諸制約)を説明した。つまり、「～が～たい」は自発的願望を表し、「～を～たい」は意志的願望を表すということを主張した。自発的願望とは、話者が発話時点で実現したいと願う、内面から無意識に湧いてくる願望を言う。意志的願望とは、話者が意志的に、あるいは思考を通して持つようになる願望であり、それは発話時点で実現したいと願う場合もあれば、未来に実現したいと願う場合もある。このように、「～が～たい」と「～を～たい」は、自発的願望と意志的願望という意味的特徴で対立している。また、「～が～たい」には総記解釈が成立する場合が見られるが、この総記を表す「～が～たい」は自発的願望を表す「～が～たい」とは異なるものである。つまり、「～を～たい」で表される事柄が文脈が許される場合において、総記を表す「～が～たい」に交替されるものである。

自発的願望と意志的願望という意味的特徴を裏付ける現象として、動詞の種類、時制の制約、連体修飾語、副詞との共起、構文的制約をあげ、それぞれについて考察を行った。動詞の種類に関しては、自発的願望を表す「～が～たい」には、主に人間の基本的な欲求を表す「食べる」「飲む」「聞く」「見る」のような動詞が用いられ、意志的願望を表す「～を～たい」には、動詞の種類に制約が見られない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時制の制約に関しては、自発的願望を表す「～が～たい」は発話時点で実現したい願望を表し、未来に実現したい願望を表すことはできないのに対して、意志的願望を表す「～を～たい」は発話時点で実現したい願望や未来に実現したい願望の両方を表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述べた。連体修飾語に関しては、名詞句が連体修飾語によって限定される場合、意志的願望を表す「～を～たい」が用いられることが多いことを述べた。副詞との共起に関しては、自発的願望と意志的願望という意味的特徴と呼応する副詞を提示した。構文的制約に関しては、両構文と呼応する文型を提示した。

論文分野：統辞論

キーワード：格交替, 自発的願望, 意志的願望, 総記

■ 김희성 (金熹成)

광운대학교 강사

kimshello@hotmail.com

- 投稿日 : 2014년 12월 20일
- 審査開始 : 2015년 1월 13일
- 審査完了 : 2015년 2월 5일
- 掲載確定 : 2015년 2월 9일